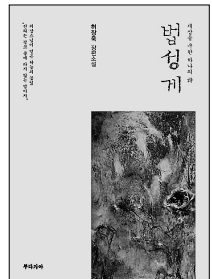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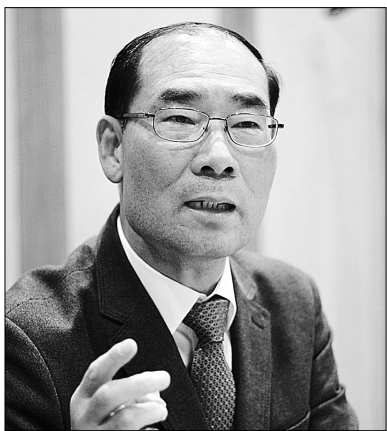
# “의상 스님 구도역정 소설로 풀어낸 화엄 이야기”

## 법성계

허정욱 지음 | 부다가야 펴냄 | 1만 4천원



원효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진리를 구하려 간 의상대사는 '해동화엄초조(海東華嚴初祖)', 즉 신라 화엄종의 시조라 불린다. 화엄종 근본 교인인 의상대사는 법성계를 지어 널리 알렸다.



### 2년에 걸쳐 의상 스님 관련 서적 연구 중국 직접 현장 답사하며 자료 수집 <법성계> 읽기 편하게 이야기식 구성

서 1990년에는 월간 문예사조에 단편소설 '재회'로 등단한 작가이다. 또한 '시인과 뜬부기'라는 소설과 '화엄예찬'이라는 시집도 발간했다.

저자는 법성계라는 신묘한 시가 탄생한 배경을 찾아 의상대사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2010년 6월 명예퇴직한 저자는 불교에 더욱 심취해 의상 대사에 대한 국내 논문과 <대승기신론> <법화경> <화엄경> <송고승전> 등

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삼국유사> 까지 2년에 걸쳐 빠짐 없이 검토 연구했다. 또한 중국에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자료를 수집했다. 저자는 불교에 대한 연구로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공부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그는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고픈 원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그는 고심 중에 갖고 있는 재능 중 문학을 선택했다. 이 책은 의상대사의 구도 역정을 장편 소설로 담아 법성계를 쉽게 설명했다. 책은 의상대사가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출발한다. 당나라 시대에 대한 묘사, 의상 대사에 대해 영향을 끼친 인연, 화엄경과의 만남 등 구체적인 설명과 대사로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한 장면이 그려진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한 저자의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불교 수행과 경험이 밑받침 된 저자의 글을 접하는 순간 스님들의 깊은 수행이 어떠한지 가늠하게 된다. 또한 수행의 깊은 맛까지 함께 체험한 착각에 빠진다. 총 10부로 구성된 이 책 중 5부 '깨짐의 새벽에 시를 쓰다' 편은 법성계를 작성한 의상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아울러 법성계를 읽기 편하게 이야기 구성에 맞춰 자세히 설명한 점도 큰 특징이다. 마지막 장 10부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에서 의상 대사의 열반을 담담한 필체로 담아 마무리 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화엄의 밝은 빛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병폐로 신음하는 현대인에게 치료제가 되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허정욱 기자

# ‘반농반X족’ ... 소박하지만 가치 있어

## 반농반X의 삶

시모미 나오키 지음 | 노경아 옮김 | 더숲 펴냄 | 1만 4천원



자연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는 귀농·귀촌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다. 이것은 단지 노년의 삶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2010년 30대 귀농·귀촌 인구는 761명에서 2014년 7743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성공신화에 빠져 있던 개인과 사회의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귀농·귀촌은 농촌생활에의 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극복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 출간된 <반농반X의 삶>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삶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반농반X(엑스)'란 농업을 통해 정말로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술·예술·지역 활동 등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X)'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이다. 농업을 통해 식량을 지속가능하게 자급함으로써 대량생산·운송·소비·폐기를 멀리하는 '순환형 사회'를 추구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주를 세상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인생은 물론,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대안적 삶을 말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일본에서는 물론 중국·대만까지 소개·확산됐고, 한국에서도 원서를 찾아보고 직접 저자를 찾아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나라의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반농반X가 소개됐다. 이런 전 세계적인 반응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서 시작됐다. 저자는 어떤 것의 부속물이 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지혜와 하나의 일을 완수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 먹고사는 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혜는 농사, 역량은 X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귀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배란다사 텃밭에 자신이 먹을 것을 조금씩 재배하면서 시작해도 좋다. X 역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농반X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말이 생기는 것은 새로운 관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관점이 생긴 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환경·식량·심리·교육·의료·복지·사회불안 등 현대 사회가 갖는 수많은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농반X'를 꼽는다.

지금의 많은 문제는 인위적인 쓸림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며, 인적·물적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순환형 사회'를 만들므로써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 "X라는 문자에서 하나의 선은 자신의 길, 또 하나는 사회의 길이라면 그 접점은 자신과 사회가 조화된 지점을 나타낸다"라는 저자의 말서 알 수 있듯이 '반농반X'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대안이다.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 '환경문제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반농반X'라는 삶의 방식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10년 간의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반농반X'의 삶을 살아간다. 이 책에는 영화자막 번역가, 화가, 민박집 주인, 건강한 밥상요리교실 강사, 웹디자이너, 간병인, 심리치유사 등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의 이야기서 알 수 있듯이 '반농반X'에는 현실적 삶과 대안이 담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천직과 보람을 찾게 한다. 숨막히는 삶과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적 방향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의 각각의 이야기 끝의 '덧붙이는 말'에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

### '온전한 삶'을 위한 고민서 비롯돼

저자, '농사와 일 반반 섞어라' 주장

기가 실려 있는데, 이것을 통해 반농반X가 그저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세상은 확실히 빨림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20세기는 '만들기' '늘리기'를 통한 텃섬의 시대고 그로 인해 군살이 붙은 사회와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 병리 현상을 일으켰다. 이제는 그 군살을 빼서 지역, 가족, 개인 등 작은 공동체의 압축성과 세련성을 추구해야 한다. 규모의 이익(Scale Merit)에서 작은 것의 이점(Small Merit)으로 가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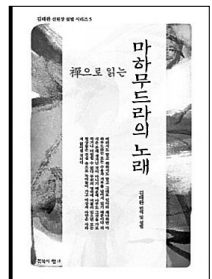
효율만 좇던 현대 사회에서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해야 삶과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는 논리에 슬슬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제 성장이 전제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소유가치에서 이용가치로, 규모의 이익에서 작은 것의 이점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시대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지금 '반농반X'라는 화두는 가장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통찰과 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이 책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증명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머물 때 '자유'가 온다

## 禪으로 읽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3천원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의 <禪으로 읽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禪으로 읽는 금강경>에 이은 '김태완 선원장 설법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이다.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대승 불교 금강승인 티베트 불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탁월한 계승이다. 카규파의 창시자인 티로빠가 지어 후계자인 나로빠에게 전해 준 이 계승은 늘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모든 망상서 벗어나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아름다운 노래에 담고 있다. '마하무드라'란 결국 변할 수 없는 것, 즉 진여실상(眞如眞相)을 가리킨다. 의식하던 못하던,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자유와 행복이다. 공부인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이며, 이 길에 들어선 것은 다른 모든 길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함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서 배운 방식대로, 이 길에서도 역시 노력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1천 년 전에 이 땅 위를 걷던 스승 티로빠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9절서 이렇게 말한다. "진언(眞言)과 육바라미의 수행

이나, 경전과 지침서의 가르침이나, 강의실과 교본(敎本)의 가르침이 타고난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이 욕망에 차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의 빛을 가릴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위의 노력은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의 욕망과 추구가 오히려 본래 있는 자신의 빛을 가려서 '타고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자유와 행복은 그런 상식적

### 티베트 불교서 중 가장 잘 알려진 계승 결국 변할 수 없는 '진여실상' 지혜에 "대자유 위해서는 지금 이것 깨우쳐라"

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통해야 한다고 티로빠는 말한다.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면, 그는 깨달음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생각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어라."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머무는 때, 늘 이 자리에 있는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럴 때 질긴 굴레를 부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눈앞을 가린 무명으로 인해 모르고 있을 뿐, 그래서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을 뿐, 사실은 본래 완전하며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머무르면, 우리가 무의법(無依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유롭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게 아니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얽매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유로운 것은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얽매어는 데도 없고, 머무는 데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에요. (손가락을 세우며) 이 법 하나! 이것만 분명하면 아무 걸림이 없고 향상이 일 하나뿐인 거죠. 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조차도 없는데 남을 의식하고 할 게 없죠. 하 여튼 이것 하나! 이것 하나뿐입니다. (손을 흔들며) 언제든지 그냥 이 법입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하고 충실하면 됩니다."

어디에도 걸림 없는 대자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진실'을,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을 깨쳐야 한다. 이 진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깨친 선지식의 바른 지도를 받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禪으로 읽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수많은 방향서, 수많은 손가락으로 이 진실 하나를 가리키므로, 책을 읽는 동안 독자로 하여금 저절로 몰입돼 이 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인도·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 순례지도법사 - 법연스님

- 활동사항
  - ◇ 한국불교대학교 열린선원 원장
  - ◇ BTN 전문승려 출연 방송중
  - ◇ 저서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의 다수
  -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 ◇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지
  - ◇ 마을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 주요 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샤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 인도·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기수, 보건학 박사

-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아기를 찾고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친화적 저절로 흔들리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금) 까지
- 동 참 금 : 275만원
- 신청 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 2차 접수 : 275만원 (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
  -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여행사
  -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은 안내해 드립니다.

### 보다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향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 나는 붓다를 느끼러 인도-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일)(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생지 - 아그라 - 델리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 명상 여행  
Buddha Bohemian